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책 배달,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A시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Book Delivery and Reading Program for Vulnerable Children: Focusing on the Case of Library A in Gyeonggi-do

공 정 자(Jeong Ja Kong)*
조 미 아(Miah Cho)**
이 부 미(Boomi Lee)***

< 목 차 >

I. 서론	IV. 독서 효과 분석 결과
II. 선행연구 분석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A시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A시 도서관은 방문교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비대면으로 책만 배달하거나, 대면으로 책을 읽어주고 책 배달을 함께 하였다. 2022년 프로그램 참여자는 103가정 158명으로 이 중 책 배달은 67가정 103명, 책 읽어주는 36가정 55명이다. 취약계층 어린이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사업 시작과 종료 시기에 독서 효과 측정지표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방문교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분석결과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 중 어린이의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고 상호작용이 큰 책 읽어주기의 효과가 높았다. 연령상으로 독서경험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유아가 초등학생보다 독서 효과가 더 좋았다. 계속 참여집단보다 신규 참여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약간 더 효과적이었다. 이외에 프로그램 시행 후 독서 흥미, 독서 태도, 독서환경, 독서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사회성, 언어능력, 독서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도서관 이용률 등에서 향상되었다.

주제어: 취약계층, 유아, 어린이, 양육자, 독서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독서 효과 측정, 사례연구, 지식정보 격차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visiting reading programs for vulnerable children, focusing on the case of libraries in A-si, Gyeonggi-do. Library A utilized a visiting teacher to deliver books that matched the children's levels and interests through non-face-to-face interactions, or to engage in face-to-face reading sessions and deliver books together. In 2022, a total of 158 individuals from 103 famili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ith 103 individuals from 67 families delivering books and 55 individuals from 36 families engaging in book reading activities. Pre- and post-project survey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reading effect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visiting teacher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evel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during book delivery and reading sessions were identified, and the effects of reading books with high levels of interaction were significant. Infants who were able to easily acquire reading experiences according to their age exhibited better reading effects compar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rogram aimed at the new participant group showed slightly greater effectiveness than the group of continuing participants. Furthermor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mprovements were observed in reading interest, reading attitude, reading environment, reading interaction, self-esteem, social skills, language ability, reading profici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ibrary utilization rate.

KEYWORDS: Vulnerable Class, Preschoolers, Children, Caretaker, Reading Education, Accessible Service, Measuring Reading Effectiveness, Case Study, Knowledge Gap

- * 안성시 도서관 사서(ibookl@daum.net / ISNI 0000 0004 6854 1153)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iah100@naver.com / ISNI 0000 0004 6104 5034)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boomilee@hanmail.net / ISNI 0000 0000 4916 9879)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3년 5월 23일 • 최초심사: 2023년 5월 28일 • 게재확정: 2023년 6월 1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2), 131-154,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2.202306.131>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펜데믹 이후 소득수준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와 교육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및 돌봄 방치 등으로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해력(literacy)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22년에 EBS에서 방영한 <당신의 문해력>으로 우리 사회에 문해력 향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글 내용에 관한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나아가 주변에 있는 각종 글과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학습과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찬선, 2022, 17). 점점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시대와 상황이지만 문해력의 발달을 위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읽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읽기 능력은 스스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많이 읽을수록 생성된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독서환경 조성과 가정에서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읽기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경제 수준 등의 가정환경으로, 독서 활동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문해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마다 다른 문해력 발달은 대개 한 개인의 탓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기회'의 양과 질의 차이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가정에서 이미 다양한 책을 접한 아이들과 글로 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평균적인 읽기 능력 발달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글에 노출되는 정도와 빈도가 다르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이다(조병영, 2021, 117).

어려서의 낮은 문해력은 청소년, 성인이 되어서 이어지는 심각성이 있다. 읽고 쓰기는 학습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는 학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를 비롯하여 학교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의 문맹은 사회 문맹으로 이어진다.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아이가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홍인재, 2018, 37). 이처럼 어린이의 정보 격차는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도서관에 가 본 경험이 없고 책 속 인물들을 접해 본 경험조차 없는 아이가 있다면 교실 내 읽기 격차는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읽기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면 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Quigley, 2022, 23).

읽기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지식정보 접근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중추적 기관으로 도서관법 제6조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의 제2항 “도서관의 책무”에도 명시되어 있다. IFLA의 “어린이 도서관의 사명”에서 도서관은 보편적 리터러시(universal literacy)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의 도서관계에서 취약계층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경기도의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은빛 독서 나눔이” 파견 독서 활동,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선별된 책을 지원하는 “책드림, 꿈드림”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살펴 보면 취약계층 중 사회복지시설 등에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선별된 책을 제공하는 경우로 대상이 제한적이고 아직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주도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인 공공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농복합시인 경기도 A시 전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의 독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 서비스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A시 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비대면으로 책만 배달하는 사례(이하 “책 배달”)와 대면으로 책을 읽어주고 책 배달을 함께 하는 사례(이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2021년과 2022년에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책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문교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였고, 각 가정 어린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활용하였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독서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취약계층 방문은 2인 1팀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방문교사는 대부분 1가정당 1~2명의 어린이에게 독서 활동을 지원하며, 1팀당 그룹홈과 다자녀의 경우도 취약계층 어린이가 6명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책 배달은 2주에 1회씩, 책 읽어주기는 1주에 1회씩 가정을 방문하였다.

본 연구는 A시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취약계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의 어린이와 양육자, 방문 교사를 통하여 독서프로그램의 참여 시기와 종료 시기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와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참여 어린이와 가정에 독서능력 발달 등의 독서 효과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프로그램 중 비대면으로 책만 배달하는 사례와 대면으로 책을 읽어주고 책 배달을 함께 하는 두 사례 중 어느 사례가 독서 효과가 좋은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령에 따라 독서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독서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되어 13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독서수준, 독서경험, 흥미 등의 상황에 맞게 찾아가는 방문교사를 통해 진행한 사례이다. 책 배달,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그룹홈,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저소득층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의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참여 어린이의 연령이 3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범위가 넓고,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특성상 독서환경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의 독서수준이 평균 연령과는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독서 효과를 측정하는데 같은 측정 문항을 프로그램 실시의 사전과 사후로 측정하여 단순 비교한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특정 지역의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책 배달, 책 읽어주기를 실험 적용하였기에 그 결과를 모든 취약계층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책 배달,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독서 효과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효과 측정도구'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의 종합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13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종합적 효과보다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책 배달,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독서 효과를 단순히 비교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II. 선행연구 분석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서관 접근에 제약이 있는 계층 또는 지식정보에 접근·수용·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을 말한다(서울도서관, 2023). 이러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는 도서관법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정보 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노영희, 장로사(2019)의 연구를 보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97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계층별로 1순위는 장애인 대상 13편, 2순위는 다문화 대상 12편이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저소득층 등 기타 취약계층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취약계층 중 어린이를 다룬 연구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서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로, 그동안 국내 도서관계의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미아(2010)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독서교육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46개 기관의 초등학교 590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여기관 46개관 중 42개관(91.3%)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난 도서관은 11개관(23.9%)으로 나타났다.

이연옥, 노영주(2012)는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한 소외계층 아동 1,6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독서프로그램 참여 후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에 관한 관심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아동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아동의 경험과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윤경, 정연경(2014)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효과를 고찰하고 성과 측정 도구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기능 및 효과를 조사하였다. ‘2013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중 지방 권역별로 10개관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어린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언어능력과 사회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사회성, 독서능력과 언어능력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여주, 정연경(2014)은 ‘2013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중 지방 권역별로 10개관의 어린이들, 독서프로그램 담당자들과의 면담 및 관찰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적 영향, 학년 구성, 사서의 적극적인 노력, 강사의 수업 구성 방식, 독서프로그램 참가 어린이의 독서에 관한 관심 및 기본적인 독서능력, 독서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책의 선정, 자유 시간의 여부가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지현(2016)은 서울지역 12개 공공도서관의 '2015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효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 후의 효과는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이나 참여도, 독서동기부여, 책이나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서적인 면, 독서능력, 언어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 전정현(2017)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각장애인 도서관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하였다. 3개의 맹학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조사한 결과 도서관 이용빈도, 독서량,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정보활용 및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영역에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의 어린이 대상 취약계층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5편을 차지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2007년부터 전국 공공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 외에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독서프로그램과 저소득층과 장애인 외의 다양한 취약계층 어린이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A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 어린이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독서 효과를 측정하였고, 방문교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A시 도서관에서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2021년에 참가했던 52가정의 어린이 92명을 포함하여 117가정 174명이 신청하였다. 이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여 사업종료 시기에는 103가정 158명이 참여하였다. 다음 <표 1>은 2022년 참여 가정과 참여인원 현황이다. 책 배달은 문 앞에 책을 놓고 오고, 책 읽어주는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으로 취약계층 가정이 가정을 개방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책 배달은 67가정 103명이 참여하였고, 저소득층 가정이 36%로 가장 많았다. 책 읽어주는 36가정 55명으로 다문화 가정이 50%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책 배달,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표 1〉 2022년 참여 가정과 참여 인원 현황

프로그램	구분	그룹홈	다문화	장애아동	저소득층	조손	한부모	합계
책 배달	참여가정(수, %)	2(3.0%)	20(29.9%)	8(11.9%)	24(35.8%)	3(4.5%)	10(14.9%)	67(100%)
	참여인원(명, %)	10(9.7%)	26(25.2%)	12(11.7%)	38(36.9%)	5(4.9%)	12(11.7%)	103(100%)
책 읽어주기	참여가정(수, %)	1(2.8%)	19(52.8%)	2(5.6%)	3(8.3%)	3(8.3%)	8(22.2%)	36(100%)
	참여인원(명, %)	2(3.6%)	28(50.9%)	3(5.5%)	5(9.1%)	4(7.3%)	13(23.6%)	55(100%)
계	참여가정(수, %)	3(2.9%)	39(37.9%)	10(9.7%)	27(26.2%)	6(5.8%)	18(17.5%)	103(100%)
	참여인원(명, %)	12(7.6%)	54(34.2%)	15(9.5%)	43(27.2%)	9(5.7%)	25(15.8%)	158(100%)

2021년부터 계속 참여한 어린이 현황은 〈표 2〉와 같이 58가정 103명으로, 전체 참여 어린이의 65%를 차지한다. 2022년 신규 참여현황은 45가정 55명이다.

〈표 2〉 2021년~2022년 연속 참여가정 현황

프로그램	구분	2021~2022년 연속 참여가정	2022년 신규 참여가정
책 배달	참여가정(수, %)	40(69.0%)	27(60.0%)
	참여인원(명, %)	73(70.9%)	30(54.5%)
책 읽어주기	참여가정(수, %)	18(31.0%)	18(40.0%)
	참여인원(명, %)	30(29.1%)	25(45.5%)
계	참여가정(수, %)	58(100.0%)	45(81.8%)
	참여인원(명, %)	103(100.0%)	55(100.0%)

2022년 연령별 어린이 현황은 〈표 3〉과 같다.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는 45명, 초등학생은 113명으로 비율로 보면 초등학생은 72%, 유아는 28%를 차지한다.

〈표 3〉 2022년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연령별 참여 어린이 현황

프로그램 \ 연령	유아	초등학생	합계
책 배달(명, %)	21(20.4%)	82(79.6%)	103(100.0%)
책 읽어주기(명, %)	24(43.6%)	31(56.4%)	55(100.0%)
합계	45(28.4%)	113(71.6%)	158(100.0%)

2. 독서 효과 측정지표 설정

독서 효과측정을 위하여 측정지표는 기존 연구로 제시한 국외와 국내의 독서 효과측정 지표를 활용하였다. RIF의 독서능력발달점검표와 “경기도 유아 책 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위한 독서

육아 효과 분석 연구”(경기도, 20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성과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3)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능력발달점검표(Reading Checkup Guide 'Read Me a Story')는 미국의 비영리 독서진흥재단인 RIF(Reading Is Fundamental)에서 만든 것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친 점검표를 사용하였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4).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는 것에서부터 독립적인 독서에 이르기까지 독서 발달의 여섯 단계로, 신생아에서 3세부터 초등 3학년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영아 및 유아(신생아~3세), 미취학 어린이(4세~6세), 독서 준비기 어린이(취학 전~초등 1학년), 독서 입문기 어린이(유치원~초등 2학년), 독서 발달기 어린이(초등2~초등 3학년), 독서 독립기 어린이(초등 3학년 이상) 등이다. 각각의 연령별 발달단계에서 보이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문항으로 <표 4>와 같이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의 4문항과 “우리 아이는 다음을 할 수 있나요?” 4문항으로 각각의 항목이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RIF의 “독서능력발달 점검표”

범주	구성요인	문항 수	척도	만점
지식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4	3점 척도	12점
기술	우리 아이는 다음을 할 수 있나요?	4	3점 척도	12점

둘째, 유아를 대상으로는 “경기도 유아 책 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위한 독서 육아 효과 분석 연구”(경기도, 2021)에서 개발한 ‘책꾸러미 활동 효과지’에서 유아용과 양육자용 독서 효과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2021년 경기도 동북부 7개 시·군에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책 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효과 측정지표로 유아 대상은 <표 5>, 양육자 대상은 <표 6>과 같다. 세부 측정항목으로 유아는 독서 흥미와 독서 태도이며, 유아의 양육자는 유아의 독서능력, 독서환경, 독서 상호작용, 독서 육아 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5> 유아 대상 독서 효과 측정문항

범주	구성요인	하위요인	문항 수	척도	만점
독서 흥미	책과 읽기에 대한 느낌(정서)	방향, 집중도, 중요성, 표현, 선호	5	3점 척도	15점
독서 태도	인지	타인 기대에 대한 신념 읽기에 대한 주관적 가치	2	3점 척도	6점
	행위	일관성, 적극성	2	3점 척도	6점

〈표 6〉 유아의 양육자 대상 독서 육아 효과 측정문항

범주	구성요인	하위요인	문항 수	척도	만점
유아의 독서능력	흥미	흥미, 선호, 관심	3	5점 척도	15점
	인지	책 인지, 지각	2	5점 척도	10점
	태도	태도	1	5점 척도	5점
독서환경	가정환경	읽기습관, 빈도, 책 접근성, 독서공간, 독서시간	5	5점 척도	25점
	지역사회 환경	도서관/서점 경험, 독서교육 참여	2	5점 척도	10점
독서 상호작용	인지	읽기 중 상호작용, 읽기 후 상호작용	2	5점 척도	10점
	정서	칭찬	1	5점 척도	5점
독서 육아 효능감	독서 효능감	독자 효능감, 독서 효능서	2	5점 척도	10점
	독서 육아 효능감	독서 지도 효능감, 독서 선정 효능감, 독서지도자신감, 독서 육아 문제 해결력	5	5점 척도	25점

셋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13년 연구한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성과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3)의 ‘어린이 대상 설문지’를 기반으로 측정지표를 〈표 7〉과 같이 활용하였다. 세부 측정 항목은 자아존중감, 사회성, 언어능력, 독서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독서환경, 도서관 이용률, 독서량 등이다.

〈표 7〉 독서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성과 측정 문항

범주	구성요인	비고	척도	만점
자아존중감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 자아존중감	10문항	5점 척도	50점
사회성	근면성, 자주성, 준법성, 책임감, 협동성, 지도력, 대인관계	14문항	5점 척도	70점
언어능력	어휘력,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8문항	5점 척도	40점
독서능력	독해력, 독서 흥미, 독서 태도, 자발적 독서, 독서속도, 독서 확장	6문항	5점 척도	30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흥미, 학습 동기, 학습습관, 학습평가	4문항	5점 척도	20점
독서환경	가족과 친구의 독서습관	2문항	5점 척도	10점
도서관 이용률	학교,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2문항	5점 척도	10점
독서량	지난 한 달과 읽은 책의 수	1문항	5점 척도	5점

3. 연구방법 및 절차

찾아가는 취약계층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 양육자와 방문교사를 대상으로 〈표 8〉과 같은 설문지를 조사, 분석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독서 효과측정을 위하여 독서 측정 설문지를 2022년 4월과 11월에 회수하여,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유아와 어린이 대상 설문지는 방문교사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RIF의 ‘독서능력발달 점검표’는 참여 어린이 158명 중 154명이 참여하였다. 유아와 초등학생 진단지는 설문 문항이 많고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는 책 읽어주기 55가정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유아는 18명, 유아 대상 양육자는 19명, 초등학생 35명에게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A시 도서관이 사업종료 11월에 찾아가는

취약계층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양육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2021년부터 3년째인 2023년에도 활동을 하는 방문교사 4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에 인터뷰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와 가정의 독서능력 발달 등 독서 효과와 변화,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 사례 중 어느 사례가 독서의 효과가 좋은지, 어린이의 연령과 참여 기간에 따른 독서 효과의 차이 등 연구 문제에 맞는 한정된 질문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8〉 설문 조사 참여자 및 측정지표

대상	참여자 수	측정지표	조사시기
유아~초등학생	154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RIF '독서능력발달 점검표'	2022년 4월, 11월
유아	18명	경기도 '책꾸러미 활동 효과지' 유아용	
유아의 양육자	19명	경기도 '책꾸러미 활동 효과지' 양육자용	
초등학생	35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 대상 설문지'	
양육자	100명	A시 도서관 '만족도 설문지'	2022년 11월
방문교사	4명	인터뷰	2023년 4월

IV. 독서 효과 분석 결과

본 절은 3장에서 도출된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양육자, 방문교사를 대상으로 본 사업의 독서 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독서 효과측정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효과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사전·사후의 변화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적용한 집단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사전·사후검사의 평균은 검사의 각 하위 영역의 수가 동일하지 않은 관계로 영역별 합계의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1. 취약계층 프로그램의 독서 효과 분석

유아, 초등학생, 양육자와의 설문조사와 방문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취약계층 프로그램의 독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통계를 분석하였다.

가. 전체 유아, 어린이 대상 효과 분석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RIF 독서능력발달 검사를 위한 점검표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검사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100가정의 15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독서 능력발달 점검표는 지식(4문항, 12점 만점)과 기술 문항(4문항, 12점 만점) 각각의 항목이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서능력발달 합계 점수는 24점이 만점이다. 독서능력발달검사의 사전과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전체 점수로 사전 검사 점수는 15.78점, 사후검사 점수는 17.35점으로 사후에 1.57점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능력발달 지식 영역과 기술 영역 모두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향상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체 참여 어린이의 독서능력발달 요인별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12점)	사전(154)	7.56	2.231	-3.789***	.000
	사후(154)	8.31	1.894		
기술(12점)	사전(154)	8.21	2.226	-4.763***	.000
	사후(154)	9.04	1.868		
독서능력발달(24점)	사전(154)	15.78	4.131	-4.894***	.000
	사후(154)	17.35	3.233		

* $p < .05$, ** $p < .005$, *** $p < .001$

나. 유아 대상 독서 효과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독서 흥미와 독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유아의 독서 효과는 독서 흥미(5문항, 15점 만점)와 독서 태도(4문항, 12점 만점) 각각의 항목이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서 효과 합계 점수는 27점이 만점이다. 유아 대상 독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한 사전과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전체 점수로 사전 검사 점수는 20.61점, 사후검사 점수는 23.22점으로 사후에 2.61점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독서 효과 하위요인인 독서 흥미, 독서 태도 점수는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유아의 독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유아의 독서 효과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독서 흥미(15점)	사전(18)	11.56	2.502	-2.463*	.025
	사후(18)	13.28	2.906		
독서 태도(12점)	사전(18)	9.06	2.100	-1.641	.119
	사후(18)	9.94	2.313		
유아 독서 효과(27점)	사전(18)	20.61	4.017	-2.361*	.030
	사후(18)	23.22	5.117		

* $p < .05$, ** $p < .005$, *** $p < .001$

다. 양육자 대상 유아의 독서 육아 효과 분석

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의 독서프로그램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유아의 양육자 대상 독서 육아 효과는 유아의 독서능력(6문항, 30점 만점), 독서환경(7문항, 35점 만점), 독서 상호작용(3문항, 15점 만점), 독서 육아 효능감(7문항, 35점 만점)이다. 각각의 항목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자 대상 독서 육아 효과 합계 점수는 115점이 만점이다. 양육자 대상 유아의 독서 육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한 사전과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전체 점수는 사전 검사 점수는 82.21점, 사후검사 점수는 87.63점으로 사후에 5.42점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대상 독서 육아 효과의 하위요인의 점수는 4개의 영역 모두 사후 점수가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양육자 대상 독서 육아 효과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유아의 독서능력(30점)	사전(19)	22.68	4.691	-1.795	.089
	사후(19)	24.95	6.214		
독서환경(35점)	사전(19)	22.74	5.905	-1.591	.129
	사후(19)	24.58	6.669		
독서 상호작용(15점)	사전(19)	10.89	2.492	-.909	.375
	사후(19)	11.47	3.389		
독서 육아 효능감(35점)	사전(19)	25.89	4.988	-.516	.612
	사후(19)	26.63	6.849		
양육자 대상 독서 육아 효과(115점)	사전(19)	82.21	15.665	-3.386**	.001
	사후(19)	87.63	20.573		

* $p < .05$, ** $p < .005$, *** $p < .001$

라. 초등학생의 독서프로그램 효과 분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초등학생의 독서프로그램 효과의 구성요인은 각각의 항목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생의 독서프로그램 효과 합계 점수는 235점이 만점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전체 점수로 사전 검사 점수는 151.00점, 사후검사 점수는 159.66점으로 사후에 8.66점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독서프로그램 효과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독서프로그램 효과의 하위요인 점수는 독서량을 제외한 7개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 사회성, 언어능력, 독서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독서환경, 도서관 이용률 등 모두 고른 발달과 변화를 보였다. 독서량을 제외한 하위요인의 점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독서량은 오히려 사후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초등학생의 독서프로그램 효과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자아존중감(50점)	사전(35)	31.23	5.440	-2.167*	.037
	사후(35)	33.26	5.522		
사회성(70점)	사전(35)	46.11	7.711	-1.178	.247
	사후(35)	47.71	7.466		
언어능력(40점)	사전(35)	27.69	8.010	-1.315	.197
	사후(35)	29.20	7.407		
독서능력(30점)	사전(35)	19.97	5.628	-.946	.351
	사후(35)	20.77	4.94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20점)	사전(35)	12.23	3.565	-.919	.365
	사후(35)	12.74	3.100		
독서환경(10점)	사전(35)	6.43	1.685	-1.132	.266
	사후(35)	6.80	1.530		
도서관이용률(10점)	사전(35)	4.49	2.270	-.430	.678
	사후(35)	4.69	1.940		
독서량(5점)	사전(35)	2.86	1.264	2.563	.015
	사후(35)	2.37	1.285		
독서프로그램 효과(235점)	사전(35)	151.00	27.288	-2.272	.030
	사후(35)	159.66	24.734		

* $p < .05$, ** $p < .005$, *** $p < .001$

다음은 방문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취약계층 독서프로그램의 독서 효과와 참여 어린이의 변화된 모습들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변화를 보였어요. 아이들의 독서능력과 언어발달은 눈에 띄게 변화를 보였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말과 글을 잘 모르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언어 구사력이 많이 약했고 사회성도 많이 떨어졌는데 후반기에 가서는 언어 구사도 잘하고 단어나 문장의 뜻도 이해를 잘할 정도로 능력이 좋아졌어요.” (면담자 A)

“이 일을 통해 만난 아이들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친구 같은 책이 필요한 아이, 지적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아이, 엄마처럼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아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해줬다는 것이 가장 뿌듯해요. 막연하게 짐작만 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은 너무나 많고 그중 극히 일부만 우리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한 달에 단 한 권이라도 훌륭한 책을 만나서 삶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래요.” (면담자 B)

“○○는 작년부터 책읽기를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이며, 사교육 도움을 받기 힘든 외진 시골 마을에

살아요. 공교육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로 가장 직접적인 코로나 직격 피해를 입은 당사자예요. 처음 방문 당시, 첫인상은 매우 산만, 자세 불량, 문맹. 한마디로 지적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일 년을 겪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업 중 불량한 태도도 잡히고 긴 호흡이 필요한 책도 읽어주면 집중하고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한 권 스스로 읽고, 한 권은 읽어주는 수업 방식에 습관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면담자 C)

참여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독서능력과 언어능력의 발달, 집중력 등이 향상되는 등 여러 면에서 독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별 효과 분석

비대면으로 책만 배달하는 프로그램과 대면으로 책을 읽어주고 책 배달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 중 어느 사례가 독서능력에 효과가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독서능력발달점검표로 사전·사후 결과의 비교를 통한 효과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책 배달은 <표 13>, 책 읽어주기는 <표 14>로 프로그램별 사례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책 배달 프로그램과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의 점수와 전체 점수는 모두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향상하였다. 책 배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전체 합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 영역인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 전체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의 사후검사 점수가 2.35점 증가한 것에 비하여, 책 배달 프로그램의 사후 검사 점수는 0.93점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책만 배달해주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책 배달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독서능력발달 요인별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12점)	사전(154)	7.73	2.203	-1.937	.056
	사후(154)	8.24	2.109		
기술(12점)	사전(154)	8.52	1.859	-1.875	.064
	사후(154)	8.94	1.772		
독서능력발달(24점)	사전(154)	16.25	3.676	-2.192*	.031
	사후(154)	17.18	3.499		

*p<.05, **p<.005, ***p<.001

〈표 14〉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독서능력발달 요인별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12점)	사전(70)	7.37	2.266	-3.497**	.001
	사후(70)	8.40	1.610		
기술(12점)	사전(70)	7.84	2.563	-5.020***	.000
	사후(70)	9.16	1.983		
독서능력발달(24점)	사전(70)	15.21	4.581	-4.905***	.000
	사후(70)	17.56	2.892		

* $p < .05$, ** $p < .005$, *** $p < .001$

다음은 방문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를 비교하였을 때, 독서 효과는 다음과 같다.

“매주 방문하는 책 읽어주기는 격주로 가는 책 배달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봐요. 둘 다 지속성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호작용의 효과는 읽어주기가 더 좋아요.” (면담자 A)

“책 읽어주기가 효과가 좋고 확인이 가능해요. 책 배달 대상 아동이라도 독서습관이 잘 잡혀있으면 또래의 관심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책을 꾸준히 제공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독서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책 읽어주기 아동의 경우, 아이의 정서적, 지적 수준과 욕구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눈에 띄어요. 저소득층, 결손 가정 아이의 경우, 정서적, 지적 소통이 결핍되어 있고, 언어발달이 지체된 경우가 많아서 도움을 주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면담자 B)

“책 배달은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 선택이 어렵고 부모님과과의 통화만으로 아이의 성향을 알 수 없어요. 책 읽어주기는 아이의 반응과 대화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아이에 맞게 책을 선택하고 책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면담자 D)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 중 어린이의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고 상호작용이 큰 책 읽어주기가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연령별 효과 분석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서능력발달 점검표로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나누어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연령별 책읽기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유아 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의 점수와 전체 점수는 모두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향상하였다. 유아 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 전체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5〉 유아 집단의 독서능력발달 요인별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12점)	사전(43)	7.44	2.039	-3.748**	.001
	사후(43)	8.84	1.632		
기술(12점)	사전(43)	8.19	2.196	-3.638**	.001
	사후(43)	9.33	1.961		
독서능력발달(24점)	사전(43)	15.63	3.928	-4.256***	.000
	사후(43)	18.16	3.039		

* $p < .05$, ** $p < .005$, *** $p < .001$

초등학생 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의 점수와 전체 점수는 모두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표 16〉과 같이 증가하였다. 초등학생 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 전체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사후검사 점수가 2.53점 증가한 것에 비하여 초등학생의 사후 검사 점수는 1.20점이 증가하였으므로 초등학생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초등학생 집단의 독서능력발달 요인별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12점)	사전(111)	7.61	2.309	-2.165*	.033
	사후(111)	8.11	1.956		
기술(12점)	사전(111)	8.23	2.247	-3.395**	.001
	사후(111)	8.93	1.828		
독서능력발달(24점)	사전(111)	15.84	4.222	-3.180***	.002
	사후(111)	17.04	3.264		

* $p < .05$, ** $p < .005$, *** $p < .001$

다음은 방문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본 연령별 독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지만 커갈수록 자녀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책에 관한 관심이 떨어져요,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면 책읽기는 학습에 밀려 부모들의 관심에서 떨어져요, 관심거리가 책보다 다른 곳으로 쏠리는 현상도 큰 이유예요.” (면담자 A)

“만3세 이상 중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성이 좋고,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책 읽어주기를 선택한 가정

들의 경우, 대개 부모가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유아들은 부모에게 대부분 순응적이고,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전자기기에 노출이 많아지고, 책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요.” (면담자 B)

“영유아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독서량은 앞서나가고, 독서 태도도 매우 잘 잡혀요. 읽는 것에 대해 배우는 단계로 배운 만큼 태도가 빠르게 잡혀요. 취학 전 아동은 한글의 익힘의 정도에 따라 독서능력이 달라지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교육이나 부모의 관심을 덜 받은 아이들이 익힘 속도가 느리고 책을 접한 경우가 거의 드물었어요. 초등학생은 대부분 그림동화에서 읽기 동화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 미디어인 유튜브의 영향과 게임 등이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노출도가 심했어요.” (면담자 C)

유아기는 독서경험을 쉽게 습득하는 시기로 초등학생보다 독서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독서 경험의 부족, 독서습관의 미형성으로 독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참여기간별 효과 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독서의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2022년에 신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로 나누어 독서능력 발달점검표로 사전과 사후 결과의 비교를 통한 효과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계속 참여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의 점수와 전체 점수는 <표 17>과 같이 모두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향상하였다. 계속 참여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 전체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 참여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의 점수와 전체 점수는 <표 18>과 같이 모두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향상하였다. 신규 참여집단의 지식과 기술 영역, 전체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속 참여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1.42점 증가한 것에 비하여 신규 참여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는 1.80점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속 참여집단보다 신규 참여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약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7> 계속 참여집단의 독서능력발달 요인별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12점)	사전(92)	7.54	2.206	-2.401*	.018
	사후(92)	8.16	1.906		
기술(12점)	사전(92)	8.18	2.194	-3.589**	.001
	사후(92)	8.99	1.855		
독서능력발달(24점)	사전(92)	15.73	4.074	-3.386**	.001
	사후(92)	17.15	3.265		

*p<.05, **p<.005, ***p<.001

〈표 18〉 신규 참여집단의 독서능력발달 요인별 대응표본 t-검증

범주(만점 점수)	검사(n)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12점)	사전(62)	7.60	2.287	-3.059**	.003
	사후(62)	8.53	1.871		
기술(12점)	사전(62)	8.26	2.290	-3.110**	.003
	사후(62)	9.11	1.900		
독서능력발달(24점)	사전(62)	15.85	4.246	-3.583**	.001
	사후(62)	17.65	3.189		

* $p < .05$, ** $p < .005$, *** $p < .001$

다음은 방문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본 프로그램의 참여기간에 따른 독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무관심했던 가정들이 주기적으로 배달과 읽어주기를 함으로써 책에 관한 관심이 높았어요. 책 읽어 줄 때 재미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매번 동석하여 들으세요. 아이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경계를 풀고 믿음으로써 대해 주세요.” (면담자 A)

“1년 차는 아이와 친해지는 시기로 재미있는 그림책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2년 차는 스스로 읽는 연습을 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은 책을 읽혔어요. 이 아이들은 책읽기를 거부하지 않아요. 1년 전에 비해 긴 글 읽기 훈련이 잘되어있어요. 2년 차 아이들을 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또는 성향 파악이 되어 우리가 아이에 맞춰 독서를 진행할 수 있어요. 1년 차 아이들은 독서 자세를 잡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면담자 C)

“저소득층 가정의 4학년 남자아이인데 1년 동안 친해지기 위해 무척 노력했어요.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듣든 말든 계속 대화를 시도했어요. 2년째 하면서 말문이 트이고 대화가 되어 관심 분야 책을 찾아서 가져가고 이제 책을 스스로 읽게 되었어요.” (면담자 D)

취약계층 어린이와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더라도 일정 기간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어린이와 상호작용하며 독서 효과를 높여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만족도 설문 조사 분석

2022년 A시 취약계층 프로그램에는 책 배달 67가정 103명, 책 읽어주기 36가정 55명 등 103가정 158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103가정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책 배달 서비스는 1,035회

방문하여 10,131권을 대출하였다. 책 읽어주기 서비스는 982회 방문하여 9,861권을 대출하여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였다.

취약계층 가정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사업종료 시기인 11월에 설문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은 100가정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77%, 만족 20%, 보통 1%, 매우 불만족 2%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사업 참여 희망은 87%로 다시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높았다.

본 사업 참여로 대다수 가정에서 자녀가 이전보다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으며(85%), 참여자 중 과반수가 TV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줄었다(53%)는 응답이 있었다. 책 배달 및 책 읽어주기 서비스로 언어능력, 어휘력이 향상되었고(83%), 부모님도 이전보다 책 읽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76%)을 <표 19>와 같이 알 수 있다.

<표 19> 양육자가 느끼는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구분	독서량 증가	스마트폰 등 사용시간 감소	언어능력 향상	부모의 독서에 대한 관심 증가
매우 그렇다	40명(40%)	13명(13%)	27명(27%)	30명(30%)
그렇다	45명(45%)	40명(40%)	56명(56%)	46명(46%)
보통이다	10명(10%)	36명(36%)	14명(14%)	18명(18%)
그렇지 않다	3명(3%)	7명(7%)	1명(1%)	4명(4%)
매우 그렇지 않다	2명(2%)	4명(4%)	2명(2%)	2명(2%)
합계	100명(100%)	100명(100%)	100명(100%)	100명(100%)

본 사업의 유익한 점과 참여 후 가정, 학부모, 어린이(자녀)의 책에 대한 흥미, 습관 등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에 대한 문항은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우선 본 사업의 좋은 점에 대한 답변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책을 볼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28명,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집 앞까지 배달해주어 편리하다.”는 1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책 읽기에 대한 책임감과 흥미를 느끼고, 독서 기회 증가 및 집중력 향상, 수준에 맞는 도서와 희망도서를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학부모, 어린이(자녀)의 변화된 점으로 “책 읽는 것에 흥미가 생겼다.”는 21명, “어휘력, 언어능력, 사고력 등 향상”은 14명, “꾸준히 책 읽는 독서습관 형성되었다.”는 13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 외 “독서량이 증가하였다.”, “TV,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감소하였다.”, “소리 내서 책 읽기를 하면서 글자를 읽으려 노력하고 아는 글자가 나오면 재미있어한다.”, “스스로 책을 골라서 읽고 도서관 책이 오는 날을 기다린다.”, “책과 친숙해졌다.”, “가족과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가 증가하였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본 취약계층 프로그램에 대한 양육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각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종합 분석

지금까지 경기도 A시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022년 사업시작 4월과 사업종료 11월에 실시하여 전후를 비교하였다. RIF의 독서능력 발달 점검표의 분석결과 연령별 발달단계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의 지식과 “우리 아이는 다음을 할 수 있나요?”의 기술에서 참여 어린이의 독서능력이 향상되었다. 경기도의 유아 진단지에 따른 분석결과 유아의 독서 흥미와 독서 태도가 좋아졌고, 가정에서의 독서환경이 나아지고 독서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부모의 독서 육아 효능감이 이전보다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진단지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약계층 초등학생의 독서 흥미, 독서 태도, 독서환경, 독서 상호작용, 자이즌중감, 사회성, 언어능력, 독서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도서관 이용률 등이 이전보다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독서능력발달 점검표의 분석결과와 방문교사의 인터뷰 결과 프로그램 중 비대면으로 책만 배달하는 사례와 대면으로 책을 읽어주고 책 배달을 함께 하는 두 사례 중 책 읽어주기가 독서 효과가 더 좋았다. 독서 효과 측면에서 유아가 초등학생보다 독서 효과가 높았으며, 계속 참여집단보다 신규 참여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97%가 만족하였고, 87%가 2023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다수 가정에서 자녀가 이전보다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언어능력, 어휘력이 향상되었고 부모님도 이전보다 책읽기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분석을 종합해 보면, 전연령 고르게 독서능력이 발달하였으며, 일대일 대면 서비스인 책 읽어주기가 비대면 책 배달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보다는 유아가 독서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참여집단과 지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모두 독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신규 참여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약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해서 책읽기, 책 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서 독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취약계층 어린이의 경우 독서에 대한 경험과 흥미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독서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McQuillan(1998)은 ‘책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재미있는 책의 존재유무’가 독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Ross와 Mckechnie, Rothbauer(2006)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고 흥미로운 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A시 도서관에서는 직접 가정에 찾아가 책을 배달해주거나 책을 읽어주기 등 독서환경의 접근성을 높여주었고 도서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어린이의 독서 흥미에 맞게 제공하였다.

방문교사 2명이 1팀이 되어 도서관의 자료 중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도서 선정 및 활용, 책의 흥미 유도, 독서에 친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독서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는 재미난 책, 평균 연령보다 쉬운 책으로 접근하였으며, 책 배달만 할 경우에도 전화로 책 읽기를 독려하고 어린이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여 책을 선별하여 제공하였다. 만약 어린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자동차, 공룡 주제가 있다면 배달을 위해 꾸려진 꾸러미 도서 외에 자료실에서 관련 주제 도서를 대출하여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얻었다. 어린이자료실에 있는 새로 도착한 책, 사서 추천 도서, 주제 전시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A시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의 독서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아, 어린이,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독서 효과가 나타났다. 방문교사와의 인터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취약계층 프로그램의 독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등과 같이 취약계층 독서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독서 효과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은 A시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1년 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여, 장기간 독서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본 연구는 2년 동안 참여한 어린이의 독서 효과를 분석한 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방문교사와 도서관 담당자, 이외에 양육자, 취약계층 어린이와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방문교사가 직접 만나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양육자들의 상황과 그에 맞는 독서 흥미와 습관을 끌어내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그룹홈 등 각각의 취약계층 어린이의 상황이 다르다. 취약계층 유형별로 독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도서관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독서프로그램의 현황과 어려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 넷째, 양육자가 프로그램 참여로 느끼는 어린이와 가정의 변화, 양육자의 독서 지도 능력 향상 방안 등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 외에 독서가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독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추천도서 등 독서자료 정보를 분석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격차, 정보 격차가 점점 심해지며,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해력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시 도서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취약계층 어린이가 가정에서 책을 볼 수 있고 어린이에게 독서수준, 흥미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꾸준히 제공하였을 때 독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독서습관은 나이가 어릴수록,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실행할 때 형성될 수 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스스로 독서하고 가까운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계의 취약계층 서비스가 곳곳에서 더 많이 펼쳐지길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3).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성과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4). 책 읽어주세요.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경기도 (2021). 경기도 유아 책 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위한 독서 육아 효과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 수원: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 김지현 (2016).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공공도서관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노영희, 장로사 (2019). 정보 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국내 영향 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63-82.
- 박찬선 (2022). 느린 학습자를 위한 문해력.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 서울도서관 (2023. 4. 24.). 도서관정책,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출처:
<https://lib.seoul.go.kr/rwww/html/ko/serviceVulnerableSupport.jsp>
- 이연옥, 노영주 (2012).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 도서관과 책읽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73-98.
- 이지연, 전정현 (2017).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각장애인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3), 23-48.
- 임여주, 정연경 (2014).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측정 영역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89-107.
- 조미아 (2010).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효과 연구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99-220.
- 조병영 (2021).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서울: 쌤앤파커즈.
- 최윤경, 정연경 (2014).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도구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31(1), 7-29.

홍인재 (2018).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 서울: 에듀니티.

McQuillan, J. (1998). *The Literacy Crisis: False Claims, Real Solutions*. Portsmouth, NH: Heinemann.

Ross, C. S., Mckechnie, L., & Rothbauer, P. M. (2006). *Reading Matters: What the Research Reveals about Reading, Libraries, and Community*. Westport, CT: Libraies Unlimited.

Quigley, A. (2020). *Closing the Reading Gap*. 김진희 역(2022). *읽기 격차의 해소*. 서울: 글로벌콘텐츠.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Byeong-Yeong (2021). *Experience the Human Literacy of Reading*. Seoul: Sam&Parkers.

Cho, Mi-Ah (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program for alienation children: focused on the reading with library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199-220.

Choi, Yoon-Kyung & Chung, Yeon-Kyong (2014). A study on developing and applying a tool for measuring achievements of reading programs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7-29.

Gyeonggi Province (2021). *Research Service Report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Reading Parenting for the Regular Delivery of Book Packages for Children in Gyeonggi-do*. Suwon: Gyeonggi Province Library Policy Division.

Hong, In-Jae (2018). *Children Who Cannot Read and Write*. Seoul: Eduniety.

Kim, Ji-Hyun (2016). *A Study of the Management and Effects of the 'Reading with Library' Reading Programs: centered around the participating public libraries in Seoul*.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Lee, Jee-Yeon & Chun, Jung-Hyun (2017). Use of school libraries and effects of library programs for visually impair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3), 23-48.

Lee, Yeon-Ok & Noh, Young-Joo (2012). The effect and meaning of reading program for alienated children: focused on 'The Reading Program with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73-98.

- Lim, Yeo-Joo & Chung, Yeon-Kyong (2014). A study of identifying are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library reading program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89-107.
-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3). *Research Service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ment Tools for Children's Reading Programs*.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4). *Please Read the Book*.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Noh, Young-Hee & Chang, Rosa (201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library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poo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63-82.
- Park, Chan-Seon (2022). *Literacy for Slow Learners*. Seoul: School Library Journal.
- Seoul Metropolitan Library (2023, April 24). *Library policy, What i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cquisition class?*. Available: <https://lib.seoul.go.kr/rwww/html/ko/serviceVulnerableSupport.jsp>